

여수 앞바다에 3GW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 개발

산자부 공모사업 선정...국비 22억 등 3년간 용역비 총 80억 투입 민간투자기업 12개사 참여의향서 제출...10월 최종 사업자 선정

여수시가 3GW의 대규모 신규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수행기관 공모)'에 여수시가 최종 선정돼 남해안 남중권 해상풍력사업에 활기를 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로 국비 21억 7500만 원을 확보하게된 여수시는 시비 8억원과 민간 자본 50억 2500만원

을 합친 총 80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향후 3년간 용역을 실시한 이후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여수시는 안정적인 풍속·주변 산단 인접 등으로 해상풍력사업의 적지로 꼽힌다. 먼저 여수는 넓은 바다와 함께 8m/s에 이르는 안정된 풍속의 주변 환경을 갖추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과 광양 포스코, 하동 화력 등 확실한 전력 소비처가 인접해 있어 풍력단지개발에 유리한 점이다. 게다가 군 작전구역이 동·서해안에 비해 적어 사업추진이 훨씬 용이하다. 사업 선정에 앞서 시는 ▲여수국가산단의 탄소 중립 대책 마련 ▲여수시와 녹색에너지연구원, 민간투자기업 연합체(컨소시엄) 구성 ▲지역주민과 발전소 운영 이익을 공유하는 '바람연금' 추진 등을 골자로 공모에 지원했다. 민간투자기업으로는 공기업 4개 사, 국내기업 5개 사, 외국계 기업 3개 사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

으며, 오는 10월 중 세부 협약을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2032년까지 총 9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산업부 허가를 기치득한 4.5GW 포함 6GW에 대해서는 '지자체 주도 집적화단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신규 공공개발단지 3GW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 계획입지'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은 재정 안정성과 사업 성공률을 높이고, 정부의 입찰 계획에 반하지 않으면서 민간투자자의 투자 효능감을 높여겠다는 취

지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시가 해상풍력의 후발 주자로 뛰어난 만큼 국내 선진지에서 시도하고 있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정부 주도형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병행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 군립하늘공원 조성, 공정률 20% '순항'

198억 투입 봉안당 등 시설 조성 연말까지 건물 골조공사 마무리

고흥군은 숙원사업 중 하나인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사업'이 전체 공정률 20%를 향해 순조롭게 순항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군립하늘공원은 국비 35억원, 군비 159억원 등 총사업비 198억원을 투입해 5만 7679㎡ 규모로 조성된다. 봉안당 8500기, 자연장지 1883기, 유택동산,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2층 규모의 봉안당은 추모실과 사이버추모관, 사무실, 봉안실 등이 포함된 연면적 2943㎡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잔디형 자연장지는 면적 3477㎡에 조성되며,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26년 1월부터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할 예정이다.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부지 조성 이후 봉안당 건물의 기초가 되는 파일공사를 마쳤으며 올해 말까지 건물의 골조공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공 군수는 현장 간부회의를 통해 하늘공원 조성 사업 추진 경과와 예정 공정에 대해 확인 및 점검



공영민(왼쪽 두번째) 고흥군수가 고흥군립하늘공원 조성사업 현장에서 간부회의 및 현장 점검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했다. 군립하늘공원 이용 대상 및 이용료는 올해 하반기 '고흥군립하늘공원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적정하게 결정될 예정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군립하늘공원이 단순

한 추모의 공간이 아닌, 가족들이 고인을 그리워하고 편안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곡성 고달면 목동리, 9호 치매안심마을 지정

군, 올해까지 9개 마을 지정 인지 프로그램 등 관리 시스템 구축

곡성군이 치매안심마을을 확대 운영하면서 체계적인 치매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곡성군에 따르면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제1호 치매안심마을' 석곡면 덕동리를 시작으로, 매년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해 오면서 올해 고달면 목동리를 9호 마을을 지정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이같이 치매안심마을을 매년 확대 운영함으로써 대상자별 맞춤형 인지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치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고, 일반 시민들도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가 적극 동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다. 이를 위해 군은 치매안심마을의 60세 이상 주민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가능성 완화와 증상 악화 방지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중 60세 이상 정상군을 위한 치매예방 교실은 7월부터 주 2회 1시간씩 총 26회기로 진행된다. 또 고위험군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 인지프로그램은 8월부터 주 2회, 총 10회기로 운영되고 있다.



곡성군이 치매안심마을을 올해까지 9곳으로 확대 운영하면서 체계적인 치매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다. <곡성군 제공>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다양한 사업이 지원된다. 주요 사업은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교육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주민참여형 마을별화 조성 ▲치매극복 선도단지 지정을 통한 지역 치매안전망 구축 ▲치매환자의 생활 안전을 돕기 위한 안전바 설치 등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곡성군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치매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의 치매안심마을은 2019년 석곡면 덕동리(제1호), 2020년 오곡면 오지3구(제2호), 2021년 목사동면 죽정2구(제3호)와 입면 흑석마을(제4호), 2022년 오산면 부들마을(제5호)과 죽곡면 반송마을(제6호), 2023년 삼기면 괴소리(제7호)와 오산면 가곡리(제8호)가 지정됐으며, 올해 고달면 목동리가 9번째 마을로 지정됐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여수국제미술제 30일 막 오른다

다음달 3일까지 국내외 70여 명 작가 작품 160여점 전시

여수시가 2024 여수국제미술제를 오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한다. '소울푸드 앤 블랙커피(Soulfood & Black cocktail)'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인류의 생존

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식사'와 여수의 지역성이 내포된 '음식문화'를 소재로 삼았다. 아울러 시의적 주제인 '기후와 환경', 인류의 근원이 되는 '역사와 문화'의 가치도 다룬다. 전시는 여수세계박람회장 D전시홀 4개 관(D1

~4)에서 진행되며, 국내외 작가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화·사진·서예 등 현대미술을 총망라한 16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2026여수세계박람회의 일환으로 '고요한 웅성거림' 특별전도 준비했다. 같은 고요하지만, 그 안을 살아가는 다양한 생명체와 섬, 바다의 이야기를 전한다. 한편, 2024 여수국제미술제는 여수시가 주최하고 여수국제미술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한달간 20만보 걸으면 모바일 상품권

광양시 '걷기 챌린지'...모바일 앱 '워크온' 설치·커뮤니티 가입

광양시가 추석을 앞두고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통한 '9월 한가위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광양시는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해 건강 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챌린지를 시행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9월 걷기 챌린지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다. 1걸음에 1마일리지가 적립되며 1일 최대 8천 마일리지가 누적된다. 기간 중 목표 걸음 수인 20만 보를 걸으면 20만 마일리지가 쌓이고 모바일 상품권 5천원권 응모가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광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설치

하고 '광양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해 챌린지 탭에서 광양시 걷기 챌린지 '참여하기'를 누른 후 목표 마일리지까지 쌓일 때까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걸으면 된다. 다만, 참여 지역이 광양으로 제한 설정되어 챌린지 참여 시에 반드시 휴대전화 위치 설정을 켜 두어야 한다. 현재 광양시 공식 커뮤니티는 누적 9091여 명이 가입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건강 걷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사용법 등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광양시보건의료(061-797-4018)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순천시 공원 시설물 연중무휴 안전 점검

주말·휴일 자체 점검반 편성 160곳 집중 관리



순천시 공원녹지와 직원들이 오전11시근로시간 인근에서 공원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의 주요 공원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이 연중무휴로 시행된다. 순천시에 따르면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 선제 대응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공원 휴일 자체 점검반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순천시 공원녹지와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주말과 휴일에 순천시 주요 공원 160개소를 대상

으로 공원 시설물(안내판, 놀이시설, 가로등 등), 수목 상태 및 환경정비 상황 그리고 기타 안전사고 요인 및 반복 민원 현장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경미한 보수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별도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점검 결과는 향후 효율적인 공원 관리 방안에 활용할 방침이다. /순천=김은지 기자 ejkim@

구례군 어린이급식센터, 어린이 영양교육

구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관내 병설유치원 어린이 대상 영양 교육을 실시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수산물'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 강사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

춰 다양한 수산물의 종류와 영양 성분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했다. 또 수산물을 먹으면 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수산물 요리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구토물 처리 키트 등도 아이들에게 제공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세얼굴

"주민 치안 중심 공정한 법집행 최선"

공정원 고흥경찰서장

"고흥군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치안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6일 제73대 고흥경찰서장으로 취임한 공정원(사진) 총경은 "일상속 치안활동에 전념하는 경찰이 되겠다"며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이날 공 서장은 훈환참배를 시작으로, 고흥군 치안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부서별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첫 날 업무를 시작했다. 공 서장은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노력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당당한 법집행



과 동시에 따뜻한함과 인간성을 바탕으로 따뜻한 경찰이 될 것"이라며 "기본에 충실하고 존중과 배려, 화합과 소통으로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 출신인 공 서장은 1994년 경찰에 입문해 광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전남경찰청 교육계장·감사계장 등 주요보직을 거쳤다. 2021년 총경으로 승진, 해남경찰서장과 광주청 범죄예방대응과장 등을 역임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